

유월절 1월14일저녁 ~1월15일 저녁 십자가 못박히신 사건 정리 요약도표. *^^*

| 유대식 | 로마식 | 장 소 | 시 간 | 내 용 |
|-----------------------|-------------|------------|-------------------------------|--|
| 유 대 식 관 사 | 북 요 일 | 큰 다락방(마가?) | 오후8~9시경? 1월 14일 저녁 | 유월절만찬과 주의만찬을 한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요13~14장)를 하심, 무교절 첫날 곧 양잡는 날(1월 14일저녁) |
| | | 겔세마네 가는길 | 오후8~9시경? | 겔세마네 가는길에 고별설교와 당부의 말씀 요15~16장을 하신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요17장을 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 를 버릴 것, 예수가 살아나신후 갈릴리로 갈 것, 베드로가 닭을기전 예수를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 |
| | | 겔세마네 동산 | 오후 9~12시경? | 기도후 대제사장 과 장로 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잡힘 |
| | 남 요 일 | 안나스의 관사 | 오후 12시경? | 안나스(가야바의 장인, 직전대제사장,요 18:13)에게 심문당함 |
| | | 가야바의 관사 | 자정과새벽사이 | 가야바(대제사장)와 서기관과 장로들(공회)앞에서 심문받음 (마 26:57~68) |
| | | 빌라도의 관사 | 1월 15일 마27:1 새벽에 | 마 27:12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 겨 주니라 3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함 ①백성을 미혹함 ②세금내는 것 금함 ③자칭 왕 그리스도라함 |
| | | 헤롯왕의 관사 | 새벽에 요19:14 | 예수에게 이적을 보고자함, 예수에게 빛난옷을 입혀 히롱함 |
| | | 빌라도의 총독관정 | 제6시(오전6시) | 빌라도가 채찍질, 총독의 군병들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를 능욕함 가바다(박석)에서 십자가 형을 선고하고 예수를 내어줌 |
| | | 골고다 올라가는길 | 오전6~9시사이 |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짐, 여자들이 예수를 따름 |
| | | 골고다 언덕 | 제3시(오전9시) 막15:25 | 제3시(오전 9시)경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박음(막15:25) (요19:18)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못박은 무리들) |
| | | | 오전10~11시경? |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회개한 강도) |
| | | | 오전12시 경?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와 요한) |
| | | | 제 6 ~ 9시 경 12~오후3시 경 | 제6시부터 제9시까지(12시부터 오후3시) 어두움이 온땅에 임하였다(눅23:44)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이루었다 아버지여 내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 | | | 오후 3시경 눅23:44 | 예수님 운명하심 (무교절의 첫날 종교력 1월 15일, 태양력 4월15일) |

| |
|---|
| 219 빌라도의 심문 마27:11~14 막15:2~5 눅23:1~7 요18:28~38 연합 문장 |
| 무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
|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
|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야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지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
|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
|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옹호하게 하려 함이러라 |
|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총독 앞에 세우며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
|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
|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
|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
|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
| 이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
|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
|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
| ☞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
|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

| |
|---|
| 220 헤롯 안디바의 심문 눅23:8~12 |
|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
|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
|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

| |
|--|
| 221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함 마27:15~26 막15:6~15 눅23:13~25 요18:39~19:16 연합 문장 |
|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
| 저희(지도자들)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나 그리스도라 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
| ☞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통을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
|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
| 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
|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니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
|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
|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
| ☞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
| ②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
|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며 |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⑥ 빌라도가 가로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 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조를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222 로마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함 마27:27~31 막15:16~20 요19:2,3 연합 문장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① 예수의 옷을 벗기고서 ② 자색 옷을 입히고 ③ 개시 면류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 ④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를 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이다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23 골고다에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27:32~34 막15:21~23 눅23:26~33 요19:17,18 연합 문장

관정에서 나와 저희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갈 때에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잡아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①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②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③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 쓸개 탄 포도주 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행악자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의 총독 관정 오전 6시경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요19:1),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①예수의 옷을 벗기고서 ②자색 옷을 입히고 ③가시 면류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 ④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를 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⑤손바닥으로 때리며 ⑥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며 ⑦침을 뱉으며 ⑧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⑨자색 옷을 벗기고 ⑩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요19:2~3, 마27:27~31 막 15:16~20)

빌라도가 밖에나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앞에서 예수가 무죄이므로 예수를 태형을 가한후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요19:4~12)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하였다.

요19:4~12 4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진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7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10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2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3번 무죄를 주장(눅23:4, 14, 22)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강력 요구하므로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를 못이겨 관정에서 예수를 끌고나와 제6시(요19:14, 오전6시)에 가바다(박석=넓은바위,요19:13,14)에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선고 했다 (눅23:11-25)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요19:13-16)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관정에서 나와 저희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갈 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잡아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함께 골고다에 이르렀다(막15:21,22)

골고다로 가는 도중 백성과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큰무리(여자들)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 ①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 ②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 ③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눅23:28-32)

십자가에 달리신 처음 3시간

골고다 언덕 1인 제 3 시경 (오전 9시경) 대상 : 유대인들

예수께서 골고다에 도착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려 할때 마취시켜서 고통을 덜게하기 위하여 쓸개 탄 포도주(몰약탄 포도주=막15:23)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었다 예수의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마27:34~36)

제3시가 되어 가운데(요19:18) 십자가에 예수를 못박았고(막15:22-25), 두 행악자도 좌우편에 못박았다(눅23:33) 이에

1 언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중보기도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 것이라

군병들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19:23,24)

*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모욕,희롱,욕,비웃음,구경거리)한 사람들

| | |
|-------------------|---|
| (마26:67) 지나가던 자들은 |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생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마27:39,40) |
|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하며(마27:41-43) |
| 십자가의 함께 못박힌 강도들도 | 이와같이(마27:41-43) 욕하였다(마27:44) (막15:32) |
| 백성은 | 서서 구경하며 (눅23:35) |
| 관원들은 |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하고.(눅23:35) |
| 군병들도 | 희롱하면서 나야와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하더라.(눅23:36) |

골고다 언덕 2인 오 전 10 ~ 11시경? 대상 : 회개한 강도

| | |
|-------------------|---|
|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
| 다른 하나는 | (처음에는 비방하였으나 회개한후)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
| 2 인 예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23:39-43) |

성경에는 죄수의 이름이 없지만 옛 문헌과 자료에는 오른편의 착한 죄수가 디스마스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수를 모독했던 이는 게스타스라고 합니다. 마태 27:44, 마가15:32에보면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23:42에서는 강도중 하나가 가로되 '당신에 나라가 임할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 3인 정오(12시) 기피오파 대상 : 어머니(마리아) 와 사랑하시는 제자(요한)

조롱하던 폭도들이 사라지고 정오가 가까울때인것 같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 | | | |
|---------------|----------------------------------|-------------|----------------|
| 3 인 예수께서 모친에게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고 |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 “보라 네 어머니라”하신대 |
| 그 제자가 |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20:25-27) | | |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3시간

골고다 언덕 4,5,6,7인 제6시부터 제9시 (12시부터 오후 3시)경 대상 : 하나님, 자기 자신

* 예수님은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약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제 옥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12시부터 오후 3시) (마27:45, 막15:33, 눅23:44)

| | |
|-----------------------|---|
| 4 인 제 9 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크게 소리지르셨다.(15:34) (마27:46) |
|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
| 그 중에 한 사람이 |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①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자 |
| 그 남은 사람들이 |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마27:47~49) 유대인이 아니다 |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어 되고 (마27:50,51)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시(요19:28) =>시편 69: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 | |
|----------------|-----------------------|
| 5 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 “내가 목마르다”(요19:28)하셨더니 |
|----------------|-----------------------|

| | | | | |
|--|---|----------------------|---------------|--------|
| 사람들이 |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②신포도주를 받아 드신후(요19:29) | | | |
| 6 언 | 예수께서 온 인류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들어가시니라(요19:29,30) | | | |
|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눅23:44-45) | | | | |
| 7 언 |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큰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23:46) | | | |
| 예수가 운명하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27:50-53) | | | | |
|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 그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27:54) | | | |
|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눅23:47) | | | |
|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 거기서 멀리있어 바라보고 있으니(마27:55) | | | |
|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 중에 |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눅)살로메가 있었으니(마27:55)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 | | |
|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랐던 여자들이 | 많이 있었더라 | | | |
|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눅23:48) | | | |
| 예수의 아는 자들이 |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눅23:49) | | | |
| *예수를 보러 갈릴리에서 와서 멀리서 골고다를 봤던 사람들의 명단 | | | | |
| 마27:55,56 | 막달라 마리아 |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 많은 여자들 |
| 막15:40,41 | 막달라 마리아 | 작은 야고보와 요세아의 어머니 마리아 | 살로메 | 많은 여자들 |
| 눅23:49 |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 | | |
|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자들(요19:25) | | | | |
| 요19:25=예수의 모친(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 | | | |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달린자들의 다리를 꺾어 죽이고 예수는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요19:31-34)

**의학계의 한 권위자는 심장파열의 경우에만 피가 심장의 외벽 즉 심낭에 모이고, 피덩어리와 물같은 혈청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 라면 예수가 사망한 원인은 심장파열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심한 고통과 격렬해진 혈압으로 예수의 심장은 파열되었다. 예수님은 세상 죄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신 것이다.

날이 저물었을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안에 넣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고 갔다.(마27:57-60)

*십자가위에 죄폐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었다 (죄폐에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요19:20)

수신자에 따라 마태-히브리어, 마가-로마어, 누가-헬라어를 표기했을것이다. 요한은 로마식에 나사렛 예수를 첨가한 것이다.

| | |
|------|--------------------------------|
| 마태복음 |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히브리어) |
| 마가복음 | 유대인의 왕(로마어) |
| 누가복음 | 이는 유대인의 왕(헬라어) |
| 요한복음 |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로마어에 나사렛 예수를 첨가) |

유월절 만찬을 드신 날

무교절의 첫째날(마26:17)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막14:12) 유월절양을 잡을 무교절일(눅22:7)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

무교절의 두째날(마26:17),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양잡는날(막14:12) 유월절양을 잡을 무교절일(눅22:7) 유월절 예비일(요19:14)

유월절 1월 14일, 무교절 : 1월 15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십자가사건=유월절 예비일(전날)(요19:14) =안식일의 예비일(19:31)

혜용, 그리고 쓸개 탄 포도주와 신 포도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람들에게로부터 ‘쓸개 탄 포도주’를 받았으나 맛만 보시고 마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잠시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사람들이 준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매우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내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받은 ‘쓸개 탄 포도주’에는 진통 역할을 하는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후 받은 ‘신 포도주’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쓸개 탄 포도주가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로 나오는데, 몰약에는 분명히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다.

몰약과 쓸개는 모두 신 맛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몰약은 아랍어로 Morah이고, 쓸개는 히브리어로 Marrah이다. 따라서 단어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시편에 이미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시 69:21)”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단어의 혼동이라기 보다는 몰약의 신맛을 쓸개즙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인류가 저야 할 죄짐의 고통을 자원하여 대신 짊어 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진통제를 넣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면 신 포도주로는 왜 목을 축이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바로 숨을 거두셨다(마 27:50, 막 15:37, 요 19:30). .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흉악범에게 마취 성분이 든 술을 주는 관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받으신 쓸개 탄 포도주가 바로 그것이다.

‘신 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 마시던 음료수 포스카(posca)인데, 그것은 신 포도주에 계란과 물을 조금씩 섞어 만든 것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는 음료수는 거부하셨고, 이방 군인들이 주는 음료수는 받으신 것이다(눅 23:36).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어디로 전해져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암시를 주신 것으로 보인다.

해용(800).jpg

로마 군인들은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한 후 갈대(지팡이)에 꿰었고, 그것을 우슬초 줄기로 붙잡아 매어 예수님 입에 넣어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로마 군인들은 해용(海絨)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예수님께 드렸는데(마 27:48), 해용은 개정판에 보면 해면(海綿)으로 나온다. 이것은 갯섬을 말하며, 영어로는 스펀지(sponge)이다.

해용은 바위 밑에 서식하는 해양동물로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식물로 분류되기도 했다. 간혹 수심이 깊은 민물에서도 살지만 주로 지중해, 플로리다, 필리핀 등에 서식한다. 햇볕에 말리면 스펀지처럼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 물을 흠뻑 머금을 수 있고, 그것을 짜면 물이 주룩룩 흐르므로 인조 스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소, 목욕, 화장, 심지어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었다.

해용을 갈대에 꿰었다는 것은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꿰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종류의 갈대도 있지만, 대나무 같은 갈대도 자라는데, 그것으로는 지팡이를 흔히 만든다.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의 음료수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그때 긴 막대기가 갑자기 필요했다. 이 막대기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그것은 누군가가 손에 들고 있던 갈대 지팡이 일 수 밖에 없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우슬초에 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9:29), 우슬초는 약할 뿐더러 30cm 정도로 자라는 짧은 식물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로마 군병들은 해용을 갈대 지팡이에 먼저 꿰 후 그것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변에 자라는 우슬초 줄기를 잘라 해용을 맨 것으로 보인다.



십자가사건=1월 15일(중교력) -> (민간력)7월 15일 -> 태양력 4월 15일 => 최저기온 16도 최고 28도 강수량 0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한 교회사초대편... 국내 신학교교회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이 "아시아에서 본 가장 중요한 날짜는 닛산(Nisan)14일이었는데 이 날은 유월절 어린양이 잡혀 죽던 날이고 그리고 제4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날이다"라고 하였는데 [제4복음서 즉 요한복음] 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날은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며 왜곡시켜왔던 유월절예비일을 유월절 전날이라고 우겨왔던 주장과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태양력 4월 13일)

이들의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한 신학교 교회사 교재인 교회사초대편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제4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비교해서 교회사초대편을 대입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틀만에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되니 이로써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마가,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지키신 새언약 유월절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지 못하도록 휘방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뜻은 유월절 전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월절이 들어있는 주간에 오는 안식일예비일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요19:14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of Passover Week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요19: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 성경은 무교절 첫날(무교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므로 14일)은 1월 15일 태양력으로 4월 15일이 고난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난일은 AD33년 4월 15일경 임을 말하고 있다.

영국의 한교수도 월식일을 계산하여 AD33년 4월 3일에 3시간의 월식이 있었다고 밝혀내 예수님의 고난일을 AD33년 4월 3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마가의다락방-> 갯세마네가는길-> 갯세마네동산(체포)->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빌라도-> 골고다

예수수난일 33년 4월 3일 영국의 교수 월식일 계산 밝혀내

경향신문1983년12월 22일 기사(뉴스)

“예수수난일 33년 4월 3일”

英(영)교수 월식일 계산 밝혀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힌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나타난 형식과 월식과 그밖에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AD33년 4월 3일로 계산됐다고 옥스퍼드 대학의 콜린험프리와워딩톤 교수가 주장

이들은 최근 과학잡지 네이처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으로 기록된 빌라도총독의 10년 재임기간중 월식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들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가 못박힌 7주일 뒤인 오순절날 신도들이 모여 있을 때 3시간동안 월식이 있었다는 점과 천문학 및 역사적인 자료에서 AD26년과 36년사이에는 오직 AD33년 4월 3일 한번만 예루살렘에서 월식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런던=UPI본사특약]

***종교력**은 주로 종교 행사들, 즉 각종 절기를 지키거나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민간력**이었습니다. 민간력과 종교력은 7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민간력으로는 티스리월(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9-10월 경)이 1월에 해당했고, 종교력으로는 니산월(태양력으로는 3-4월)이 1월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력과 종교력을 주요 행사와 비교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력 | 민간력 | 태양력 | 비 고 |
|---------------|---------|------------|------------------|
| 종교력 1월(니산월) | 민간력 7월 | 태양력 3~4월 | 유월절, 보리추수 |
| 종교력 2월(이아르월) | 민간력 8월 | 태양력 4~5월 | 일반추수 |
| 종교력 3월(시완월) | 민간력 9월 | 태양력 5~6월 | 오순절(칠칠절), 포도원손질 |
| 종교력 4월(담무스월) | 민간력 10월 | 태양력 6~7월 | |
| 종교력 5월(압월) | 민간력 11월 | 태양력 7~8월 | 여름실과 |
| 종교력 6월(엘룰월) | 민간력 12월 | 태양력 8~9월 | 감람추수 |
| 종교력 7월(디스리월) | 민간력 1월 | 태양력 9~10월 | 신년절,대속죄일,초막절,발갈기 |
| 종교력 8월(말케스반월) | 민간력 2월 | 태양력 10~11월 | 씨뿌리기 |
| 종교력 9월(기슬르월) | 민간력 3월 | 태양력 11~12월 | |
| 종교력 10월(데벳월) | 민간력 4월 | 태양력 12~1월 | 봄철의 성장 |
| 종교력 11월(스밧월) | 민간력 5월 | 태양력 1~2월 | 겨울무화과 |
| 종교력 12월(아달월) | 민간력 6월 | 태양력 2~3월 | 아마쁨기 |

유월절과 무교절

레23:5~8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출12:1~20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 | | |
|-----|---|--|
| 유월절 | 1월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출12:6; 레23:5) 니산월(=아빤월) |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함 (신 16:1)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 주심을 상기시키기 위함 (출 2:16-20) |
| 무교절 | 1월 15일 저녁부터-21일 저녁까지(1주일간)(레 23:5~6) 1월14일 저녁부터-21일 저녁까지(1주일간)(출12:1~20) |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 무교병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희생과 봉사를 의미함 (출 12:16-20) |